2022년 / 6월 1주차

연구원 소식

연구원 운영위원회 개최

오는 5월 31일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3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2022년 사업의 실제적 집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회원 동아리 지원 사업은 모두 세 건이며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 규모 역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개원 13주년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식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업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시작될 다양한 문화강좌와 역사문화답사 일정도 확정됩니다.

운영위원회 이후 앞으로 진행될 대면 사업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회원 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대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기자촌 재개발 지역 내 마을의 역사를 구술하실 수 있으신 회원께서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정읍역의 이승만 - 1946. 6. 3

南方만의臨時政府
或은委員會組織이必要
單獨政府樹立說에
우리黨은贊成不能
李博士講演

<이승만의 정읍 발언 관련 신문 기사>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처음으로 이남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미 군정이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하자, 직접 미국에 가서 미 국무성을 대상으로 단독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돌아왔다.

1894년 갑오년의 깃발이 솟았던 정읍은 일제 강점기 무수한 신흥종교의 발상지로 위세를 떨쳤다. 그곳 정읍에서 한반도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이승만의 발언이 터진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3일이었다.

1945년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은 “뭉치면 삽네다. 흩어지면 죽습네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승만의 대동단결론은 해방 후 헤아릴 수 없는 단체와 조직들이 범람하여 그 가입자 수가 인구를 훨씬 뛰어넘던 시절에 복음과 같은 말이었으리라. 거기에 더해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한 세기 전 독립협회 시절부터 큰 이름이었고 해방 후 좌우를 망라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나 주석으로 거명되고 있었다.

미국에 위임통치를 맡기자고 주장하여 임시정부를 발칵 뒤집어놓고 탄핵을 당하고 독립운동 자금 유용 등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켰던 행태에 비춰볼 때 의아한 일일 수 있었지만...

이승만은 그러한 바람에 감동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귀국 후 믿어지지 않는 말까지 남긴다.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맞선 마산시민들의 항쟁을 북괴의 개입이라고 외쳤던 그의 변신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배어나온다.

1945년 말,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에 5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일사불란한 반대 투쟁으로 좌우가 분열되고 극심한 혼란에 접어들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후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소련이 삼상회의 결정 반대자들을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여 입씨름이 벌어지는 가운데 결렬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자그마한 팻말에 불과했던 38선은 굳어져 가고 있었고 나라의 분단이라는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1946년 5월 미소공위가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승만은 "자율적 정부수립에 대한 민성이 높은 모양이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수립되길 갈망한다."고 발언한다. 각지를 돌아다니던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 정읍에 도착했을 때 그는 향후 한국 현대사에서 폭풍을 몰고 올 말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이제 무기 휴회된 (미소)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며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 입네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다. 이른바 분단의 첫 단추였다고 지탄받는 정읍 발언이다.

미 군정은 공식 적으로는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배척했다. 당시 미군정청 민정장관이었던 아서 러치는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나는 군정장관으로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자 최초의 남한 단독 정부론으로서 당시만 해도 분단을 생각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승만은 자신의 정읍 발언을 ‘허보(虛報)’라 일컬으며 발을 빼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현대사는 그의 발언대로 움직인다. 1948년 2월 남북협상파와 이승만이 미국 하지 중장의 주재로 마주했을 때 김규식은 “조국의 분단이 결정되는 이때에 우리가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역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승만은 “내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질 터이니 염려 말라”고 맞받았다. 끝내 그해 5월 10일 38선 이남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와 9월 9일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된다.

76년 전 정읍역의 이승만은 어떻게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